선교적 교회와 삶의 실천



**강사: 박태은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선교대회 및 지역선교**

1. **들어가는 말**
2. **교회에서**
3. **가정에서**
4. **일터에서**
5. **나가면서**

**들어가는 말**

주 예수 교회의 설립 17주년을 바라보며 ‘이웃을 함께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은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도전합니다. ‘제 4차 한인 선교 대회’가 2000년 7월 말에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주 예수 교회는 개척교회로 세워진지 겨우 8개월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40여 교우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트 타임 주제에 휴가를 낸다는 것은 직장마저 잃을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만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가했습니다. 이어서 약 1개월이 지난 9월 초에 ‘제 1회 전교인 수양회’가 1박 2일 동안 Hotel Chamberlayne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b)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그 이듬해 1월에는 선교사님 두 분을 러시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해 7월, 중고등부 2세들이 멕시코로 3주간 단기선교를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은혜롭게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한 살박이 개척교회인데 총 지출의 1/3 이상을 선교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질서 정연하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시간표에 의해 진행되듯이 거침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는 바람따라 그 인도하심대로 교회가 순응하는 것이로구나!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서 선교에 눈을 뜨게 하셨고, 전 교인 수양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각인시키시고, 계속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파송하는 실제를 보여 주셨구나!” 주 예수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참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 선교’의 독특한 사명과 ‘비전 2020’ – 제자 양육, 사회 선교, 천명 성도 – 을 주셨고 우리 공동체는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삶의 현장으로서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선교적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신 은사를 찾아내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택하시고 정하셨으면 우리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신 은사와 소명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1) 주일 성수: 하나님이 택정하신 주일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선 예배, 후 봉사입니다. (2) 합심 기도: 개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 운동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연례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짧게는 1주일에서 40일, 또는 연속 기도회로 길게는 100일에서, 52일, 그리고 금번 ‘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주제: 세상으로 부름 받은 교회)’를 위해 50일 기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 예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은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영문으로도 번역된 이 공동체 기도문은 모든 예배에 온 회중이 함께 드리며 각 소그룹 모임에서도 올려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며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3) 개인 기도: 공적 예배에서의 대표 기도든, 소그룹 모임에서의 대표 기도든, 가정 예배에서의 기도든, 일 터에서 드리는 기도든, 모든 기도에 주 예수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 감당과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또한 중보 기도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익힌대로 기도 요청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4) 성경 공부: 신, 구약 성서 심층 탐구를 위한 열린 목장이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매 주일 아침에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심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주 예수 교회 역사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에 비추어 재조명하며 우리 공동체의 영적 무장을 굳건하게 하여, 오고 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35년 이민 목회의 참 진액이 고스란히 펼쳐지는 목장 성경 공부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5) 함께 선교: 선교가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에 앞서 존재하며 교회를 이끄는 동력임을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철저히 검증되고 세밀하게 준비된 다양한 모습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공권력 있는 공인된 지역 단체가 시행하는 공영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ARITAS(리치몬드 홈리스 사역), Soup Kitchen(먼로 공원 노숙자), ASP(West Virginia 산골 빈민 선교), KAFHI(우간다,인도네시아 아동 선교), 리치몬드 밀알 선교(장애우 선교), Renew Crew(지역사회 노약자 집 수리,보수) 등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 남녀노소 전체가 참여하는 Stop Hunger Now와 Blood Drive(헌혈)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 사회 및 인근 주민들을 초청하여 기획된 ‘한국 음식 문화 축제’와 인종과 교단을 아우르는 ‘다인종 음악 문화 축제’를 통한 섬김의 손 길이 지역 사회의 미디어를 타고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 선교는 이렇게 – 함께 섬기는 공동체” (담임 목사님 공동체 시리즈 제 3권) p.p. 139 ~ 141.

**2. 가정에서**

가정이 곧 선교 현장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살핍니다. 부모들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늘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QT하고, 기도 드리고, 주일 날이 되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금년에 11번을 전교인 합동 예배 또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생활권이 달라 매 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처한 곳에서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 2010년에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하여 “이민생활 정신건강 세미나”를 나흘 동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버지 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세미나와 아버지 교실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사역지로 주셨고 가족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보내 주셨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섬기게 되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하여 자녀와 함께 ‘공동체 기도문’을 읽고 ‘오늘의 양식’을 읽는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누며 교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석 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 그리고 쉬운 말로 쓰인 ‘표준 새번역 개정판’으로 한 번 읽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뉴톰슨 관주 주석 성경 개역 국한문’과 NIV 한영 해설 성경’을 옆에 두고 필요할 때 참고합니다. 지난 해 우리 주 예수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온전하며 능력있게’(딤후 3:17)였습니다. 온 교우들이 ‘통성경 길라잡이’를 교재로 하여 성경 통독에 참여하였고 아울러 저도 목표를 정하여 읽어 오고 있습니다.

**3. 일 터에서**

2010년 3월에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회)선교 부흥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평신도를 깨워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가도록”함이 그 핵심가치 입니다.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영적 분별력이 첫째되는 능력이며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정직과 신실함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나보다 남이 더 나음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엽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도착해서 ‘오늘의 양식’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생활합니다. 얼마 전, 은퇴를 앞두고 어깨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백인 직장 동료가 있어서 하루는 시간을 내어 초콜릿과 오렌지를 사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반기며 직장 소식을 묻기도 하고 어깨 통증도 호소하고 4주 후에는 다시 출근할 수 있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의 부인은 제 방문에 많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 집을 나서며 그에게 영한으로 된 ‘오늘의 양식’을 말없이 건네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읽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지난 해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권유하신 영화 ‘Selma’를 아내와 함께 관람했습니다. 1965년 3월, 흑인(African American)들이 투표권 획득을 위해 셀마 행진을 계획한 킹 목사님(Dr. Martin Luther King, Jr.)의 이야기입니다. 셀마는 킹 목사님의 삶 중에, 백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쟁을 벌이며 알라배마를 가로지르는 평화행진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과정을 집중 묘사하고 있는데 영하 제목인 ‘셀마’는 당시 킹 목사님의 활동 근거지이자 평화행진의 출발점이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결국 같은 해인 1965년에 당시 대통령인 린든 존슨에 의해 투표권 법을 포함한 공민권법 시행문서에 서명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투표권과 이민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의 삶 속에서 그 들을 선입관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함께 일하는 흑인 동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에 더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행하는 지역 사회 선교 사역은 주로 토요일에 열리는데 저는 토요일 휴가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직장 선배들이 우선 토요일과 월요일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사역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저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리라 스스로 위로합니다만 토요일에 쉴 수 있는 분 들, 아니 오전 만이라도 자유로운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에게 토요일 휴가와 관련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 및 나무 심기 행사를 앞두고 제출한 토요일 휴가 신청이 거절되어 몇 날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다가 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활은 활 시위를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 들어간 지 두 달 남짓 된 견습 시절이었습니다. 저에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해의 집사장으로서 봄에 있었던 같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 행사는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서 교회 단장과 더불어 근처를 오가는 지역 주민에게 소수 민족의 이민 교회가 지역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함에 크게 이바지하는 섬김이라 확신하였고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은 모험이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이 함께 정성을 다해 닦고 털고 문지르고 바르고 자르고 덮고 파고 심고를 반복하며 그 동안의 마음 고생으로 누적된 피로를 잊은 채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는 선포되는 말씀에의 감동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며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심은 나무와 관목들이 점점 자라 꽃 피고 열매 맺어 우리 공동체와 이웃 주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눌 것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국장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국장실에 들어가 보니 수퍼바이저가 배석해 있었고 휴가 신청 거절 용지와 또 하나의 문서인 경고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장의 40년 경력이 담긴 장시간의 엄중한 훈계를 듣고 문건에 서명헀습니다. 앞으로 정직원이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뒤로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주께서 아시리.’ 그 후 국장은 6개월이 지나 은퇴하였고 저는 정규직원이 되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체험을 주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용기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이 곳 리치몬드를 포함하여 버지니아 주 전체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동해병기표기”를 위해 주 의회에 청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교회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의 동참으로 총 301명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통과되어 ‘동해(East Sea)’가 교과서에 표기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역사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명에 동참한 지역 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앞으로 계속하여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조직과 연합하여 지역의 아픔을 돌보며 섬길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다시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이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